



경희대학교

2021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온라인]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고, 다른 펜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4.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 도구(수정액 또는 스티커)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6. 답안지에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7. 답안지는 반드시 1장만 사용하시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근세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雪山)에서 고행(苦行)을 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철회(轍環)¹⁾하였는가? 밥을 위하여서, 옷을 위하여서, 미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大衆)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 주며, 그들을 행복스럽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지 아니한 목숨을 사는가 싶어 살았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현저하여 일월과 같은 예가 되려니와, 그와 같지 못하다 할지라도 창공에 반짝이는 못 별과 같이, 산야(山野)에 피어나는 군영(群英)²⁾과 같이, 이상은 실로 인간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 할지니, 인생에 가치를 주는 원질(原質)³⁾이 되는 것이다.

1) 철회(轍環): 수레를 타고 돌아다님

2) 군영(群英): 여러 가지 꽃

3) 원질(原質): 본디의 성질이나 바탕

[나]

“어떻게 답을 얻었다고 했소? 정말 모르겠소? 당신이 말이요, 어제 허약한 나를 가엾게 여겨 나 대신 밭고랑을 파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시오.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온 그 남자는 아마도 당신을 해쳤을 것이요. 그랬다면 당신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겠소? 따라서 당신이 첫 번째로 질문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고랑을 뚫던 때라는 해답을 주고 싶소. 두 번째로 질문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라고 말해 주겠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준 것이었고, 고로 나를 위해 선행을 베푼 것이 당신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소.

이후에 부상을 당한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남자를 돌보았던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소. 만약에 당신이 그의 상처에 붓대를 감아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당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테지요. 그러므로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그에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지요.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이요.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겠소? 우리는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말이요.

[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도 종종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인구 문제는 여러 특성에 있어서 코로나19의 대척점에 있다. 첫째, 인구 변화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도 해가 바뀌어야 체감된다. 둘째, 다수의 국민에게 인구 문제는 당장 절실한 나의 문제가 아니다. 훗날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기 쉽다. 셋째, 인구 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인구가 줄면 오히려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의견도 있다.

<뒷면에 계속>

인구 변화는 과연 위기를 가져올까? 아마도 감염병 위기나 금융 위기 혹은 안보 위기처럼 순식간에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볼 때는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유례를 찾기 어려운 출생아 수의 빠른 감소는 매우 우려스럽다. 빠른 인구 변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여러 가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 결과로 국민의 평균적인 삶은 팍팍해지고, 인구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감염병과 대비되는 특성들은 인구 변화를 더 심각한 위기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느린 속도는 역설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변화가 감지되는 기간은 정책 당국자의 임기보다 길어서 시행한 정책의 공과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분야별로 파편화된 접근은 종합적, 유기적인 방안의 도출을 가로막고, 인구 문제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개인과 집단의 이념 혹은 이해를 관철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은 취약하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기보다는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유혹이 클 것이다.

[라]

권리와 정의에 관한 어떤 원칙들은 그 자체의 내재적 우월성을 지닌다. 그 원칙들은 당대 사회공동체의 재화와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와 상관없이 우월한 것으로서 사회를 근원적으로 지탱하는 힘이다. 그 원칙들은 모든 것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자연법으로서의 근본적 성격을 지닌다. 그 원칙들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을 인도한다. 그 원칙들은 항구적이고 불변적이다. 바로 헌법으로 구현되는 원칙들을 말한다. 시간을 길게 가로지르는 헌법의 원칙들에 비해 인간이 만드는 실정법은 단순한 당대 단기의 기록에 불과하다. 헌법이 실정법보다 더 우월한 최고법이고 숭앙(崇仰)¹⁾되어야 하는 이유는 항구적, 불변적 원칙들을 규정하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법 원칙들을 잘 이해한다면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그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1) 숭앙(崇仰): 공경하여 우러러 봄

[마]

‘주 52시간’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보완이 필요하다. 모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주 최장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후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71%(8조 6,000억 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담이다. 중소기업계는 개정안에 공휴일 유급화가 포함된 것도 부담이라고 불평한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도 당장 걱정이다. 근로 시간 단축에 맞춰 인력을 늘리려고 해도 인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시간의 수당에 의존해 온 저임금자도 시름이 커졌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국내 임금 체계는 대부분 기본급이 낮고 연장·초과 근로 등 각종 수당이 많다. 어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임금 중 초과 급여는 총액 대비 약 30%에 이른다. 임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않는다면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당장의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국립공원에는 거대한 빙하가 있다. 최근에는 이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내부가 약화되는 탓에 4~5년에 한 번씩 대붕괴가 일어난다. 빙하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 관광객들이 이 거대한 빙하와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빙하 주변에 만들어진 산책로에서 빙하를 편히 볼 수도 있고, 빙하 위를 직접 걸으면서 여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이미 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빙하가 무너져 내릴수록 관광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인간의 활동이 장기간에 걸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지구 온난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 경관을 보며 당장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또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 지원금은 장기적 재정 건전성 논란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재난 지원금이 국가 채무를 과도하게 늘린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넘겨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외환 위기 때 경험했듯 ‘코로나 국채’를 발행해 미증유의 전염병으로 감염된 경제를 우선 살린다면 오히려 세금과 GDP를 늘리게 되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대한 심폐

소생술보다 급한 것은 없다. 발등의 불을 일단 꺼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 채무 비율 등 걱정할 재정 건전성 확보는 더 이상 재정 당국의 도그마가 아니라 재원 조달과 경제 살리기 등을 감안해 국민 합의로 도출해야 맞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도시를 봉쇄하고 가게와 공장을 섰다운했지만 한국은 전수 조사와 투명한 공개, 공공 의료 시스템으로 생명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 부문의 충격까지 최소화했다. 이제 시작된 경제 방역에서도 신속하고 공개적이며 국민 참여와 함께하는 경제 회복의 ‘한국 모델’을 구축하고 성공시켜야 한다.

[아]

그리스가 몇 년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2016년 말 실업률은 23%이고 15~24세 실업률은 44%에 달하며, 국민의 20%가 난방이나 전화 없이 생활한다. 그리스 경제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장기적 안목을 결여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다. 정부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강화하면서 복지 지출을 확대하였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한 외채가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공무원 규모의 증가와 연금 확대 등의 정책도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 결국, 재정 위기가 닥쳤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그리스 정부의 공무원 규모는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아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07년까지 6년간 18만 6,000명을 더 뽑았다. 그리스 정부 지출 예산 중 인건비 규모는 2001년 134억 7,010만 유로에서 2007년에는 212억 9,598만 유로로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국가 정책의 장기적 고려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 체험의 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어. 우리가 시계에 의존해서 “길다” 혹은 “짧다”고 구분하며 헤아리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야. 삶을 이야기한 철학자 베르그송은 물리적 시간은 참다운 시간이 아니고 단지 생활하기에 실용적이고 유용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어. 베르그송에 의하면 참다운 시간은 각자의 체험이야. 곧 공감의 시간으로써의 지속이지. 지속은 끊임없는 흐름을 이야기한단다. 베르그송에게 참다운 시간은 흐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성(이성)에 의해서 흐름을 끊어서 생각하지. 지성(이성)은 모든 것을 형식화한단다. 우리는 삶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직관을 잊어버리고 지성(이성)에 의한 수학적 시간만 주장하곤 하지. 시계의 1초, 2초 ... 1년 ... 100년 ... 10,000년. 이렇게 단기 혹은 장기의 수학적 시간만을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베르그송은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흐르는 각자의 체험적 시간, 즉, 지속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단다. 시간의 흐름 자체는 내 안에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그 흐름을 느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지.

한 개인이 느끼기엔 시간은 순수 지속이지만 사회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엔 그 시간을 단위별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야. 때론 짧은 단위로, 때론 긴 단위로. 그래야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도 편하고 공동 작업을 할 때 일정대로 함께 맞춰 나갈 수 있지. 하지만 베르그송의 입장에서 철학적인 진정한 시간은 각자의 체험적 시간이라는 거야.

【문제 1】

제시문 [가]~[아]를 비슷한 관점에 입각한 것끼리 두 범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5점]

【문제 2】

제시문 [자]에 나오는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를 평가하고, 역으로 제시문 [사], [아]의 관점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지 서술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5점]

【문제 3】

K국가의 사람은 유형 A와 유형 B로 나뉜다. 두 유형의 사람들이 일을 할 경우 얻게 되는 연간 근로 소득은 각각 금화 20냥, 금화 10냥이다. 유형 A에 속하는 사람들 100명이 어떤 해에 일을 하게 될 확률은 0.9이고, 유형 B에 속하는 사람들 400명이 일을 하게 될 확률은 0.8이다. K국가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지불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금화 2냥의 실업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 갑자기 K국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유형 A, B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확률이 2020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각각 0.8과 0.5로 감소하게 된다고 하자. 이에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화 6냥의 고용 지원금을 1회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K국가는 향후 10년 동안 각 유형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확률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다.

<뒷면에 계속>

K국가에서 근로 여부는 매년 1월 1일 결정되어 1년간 유지되며, 개인의 근로 여부는 과거 근로 경험 및 다른 사람들의 근로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위의 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근로 소득세가 유일하고, K국가의 유형별 인구수와 화폐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1)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정부가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021년에 유형 B의 사람들 중 324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을 근사적인 확률을 아래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2) 2020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기대되는 재정 수지(재정 수입 - 재정 지출)를 고려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라.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사]를 평가하시오.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참고] 표준 정규 분포표: $P(0 \leq Z \leq z)$

z	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	0.000	0.004	0.008	0.012	0.016	0.020	0.024	0.028	0.032	0.036
0.1	0.040	0.044	0.048	0.052	0.056	0.060	0.064	0.067	0.071	0.075
0.2	0.079	0.083	0.087	0.091	0.095	0.099	0.103	0.106	0.110	0.114
0.3	0.118	0.122	0.126	0.129	0.133	0.137	0.141	0.144	0.148	0.152
0.4	0.155	0.159	0.163	0.166	0.170	0.174	0.177	0.181	0.184	0.188
0.5	0.191	0.195	0.198	0.202	0.205	0.209	0.212	0.216	0.219	0.222
0.6	0.226	0.229	0.232	0.236	0.239	0.242	0.245	0.249	0.252	0.255
0.7	0.258	0.261	0.264	0.267	0.270	0.273	0.276	0.279	0.282	0.285
0.8	0.288	0.291	0.294	0.297	0.300	0.302	0.305	0.308	0.311	0.313
0.9	0.316	0.319	0.321	0.324	0.326	0.329	0.331	0.334	0.336	0.339
1	0.341	0.344	0.346	0.348	0.351	0.353	0.355	0.358	0.360	0.362
1.1	0.364	0.367	0.369	0.371	0.373	0.375	0.377	0.379	0.381	0.383
1.2	0.385	0.387	0.389	0.391	0.393	0.394	0.396	0.398	0.400	0.401
1.3	0.403	0.405	0.407	0.408	0.410	0.411	0.413	0.415	0.416	0.418
1.4	0.419	0.421	0.422	0.424	0.425	0.426	0.428	0.429	0.431	0.432
1.5	0.433	0.434	0.436	0.437	0.438	0.439	0.441	0.442	0.443	0.444
1.6	0.445	0.446	0.447	0.448	0.449	0.451	0.452	0.453	0.454	0.454
1.7	0.455	0.456	0.457	0.458	0.459	0.460	0.461	0.462	0.462	0.463
1.8	0.464	0.465	0.466	0.466	0.467	0.468	0.469	0.469	0.470	0.471
1.9	0.471	0.472	0.473	0.473	0.474	0.474	0.475	0.476	0.476	0.477
2	0.477	0.478	0.478	0.479	0.479	0.480	0.480	0.481	0.481	0.482
2.1	0.482	0.483	0.483	0.483	0.484	0.484	0.485	0.485	0.485	0.486
2.2	0.486	0.486	0.487	0.487	0.487	0.488	0.488	0.488	0.489	0.489
2.3	0.489	0.490	0.490	0.490	0.490	0.491	0.491	0.491	0.491	0.492
2.4	0.492	0.492	0.492	0.492	0.493	0.493	0.493	0.493	0.493	0.494
2.5	0.494	0.494	0.494	0.494	0.494	0.495	0.495	0.495	0.495	0.495
2.6	0.495	0.495	0.496	0.496	0.496	0.496	0.496	0.496	0.496	0.496
2.7	0.497	0.497	0.497	0.497	0.497	0.497	0.497	0.497	0.497	0.497
2.8	0.497	0.498	0.498	0.498	0.498	0.498	0.498	0.498	0.498	0.498
2.9	0.498	0.498	0.498	0.498	0.498	0.498	0.498	0.499	0.499	0.499
3	0.499	0.499	0.499	0.499	0.499	0.499	0.499	0.499	0.499	0.499